

사진으로 보는 제90회 동아수영대회 | 힘찬 스타트, 한국수영 미래를 밝혀라!



오랜 역사와 전통, 권위를 자랑하는 제 90회 동아수영대회가 2일 광주시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개막해 5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1 여자고등부 200m 배영에 참가한 선수들이 일제히 출발하고 있다. 2 남자 일반부 200m 접영에 출전한 안양시청 노지용이 힘차게 물 살을 가르고 있다. 3 다이빙풀에서 몸을 풀고 있는 여자 중등부 싱크로 다이빙 선수들. 4 긴장되는 건 선수들만이 아니다. 스탠드에서 자녀들의 경기 장면을 휴대폰에 담으며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들. 5 대회 마스코트 수리과 달이가 손을 흔들며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주최: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대한수영연맹 주관: 대한수영연맹 광주광역시수영연맹 후원: 광주광역시 협찬: KYOBO 교보생명 arena

스포츠&

11

2018년 5월 3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전 경기 1라운드 KO승 황인수의 '파이터 본능'

“KO 비결? 난 본능적으로 싸운다”

ROAD FC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스타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나 있다. 그런 의심을 없애는 것 역시 선수 본인의 몫이다.

로드FC 미들급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황인수(24·팀매드)도 그런 상황이다.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줄곧 자신을 증명해왔다. 황인수는 아마추어 경기에 5번 출전, 모두 1라운드에 상대를 쓰러뜨렸다. 프로 무대에서도 4경기 연속 1라운드 KO승을 거뒀다.

완벽한 성격이지만, 여전히 황인수는 겸중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다. 오는 7월 28일 XIAOMI 로드FC 048에서 맞붙을 예정인 양해준과의 대결에도 그 말을 듣고 있다.

황인수가 그동안 의심을 받아온 것은 그라운드 기술이다. 모든 경기를 타격으로 끝냈고, 그라운드 상황은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대결 상대가 레슬링 베이스의 양해준이기에 그런 금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황인수는 “팀 자체가 그라운드 훈련을 많이 한다.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느는 것 같다. 나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한 번도 경기를 하면서 넘어간 적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경기에서 그라운드 기술에 대해 증명해야 할 것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황인수에게 팬들이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타격이다. 그에게 타격에 대한 비결을 묻자 “나는 본능적으로 싸운다. 원래 치고 박는 것을 좋아한다. 항상 1,2,3라운드를 다 준비해서 경기를 한다. 1라운드에 KO시킬 생각은 딱히 없는데 이제까지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다가오는 양해준과의 대결에서 승리가 절실한 이유도 있다. 황인수는 “최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살아계실 때 나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다.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서 할머니께 승리를 바치고 싶다. 하늘에서 손자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은상 기자

KDB생명의 운명은? | WKBL, 코치진 인선 마무리...인수·위탁운영 투 트랙 유지

“좋은 주인 안 나타나면 네이밍 스폰서도 OK”

정상일 신임 감독, 선수단과 상견례 박영진 전 대행, 코치로 다시 팀 복귀 휴먼자산과 협상...장기 운영력 관건

KDB생명을 위탁 운영하는 WKBL은 4월 30일 공모 과정을 거쳐 정상일 감독을 선임한데 이어 2일에는 코칭스태프 조각을 마무리했다. 2017~2018시즌 도중 KDB생명 감독대행을 했던 박영진 코치가 재합류했고, 트레이너, 매니저 등과도 계약을 마쳤다.

KDB생명은 이날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선수단 상견례를 갖고, 차기 시즌에 대비한 훈련에 돌입했다. KDB생명 선수단은 당분간 수원에 위치한 보훈교육연구원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을 사용할 예정이다. 선수들은 출퇴근 하지 않고, 보훈교육연구원 내 시설을 숙소로 활용한다.



정상일 신임 감독과 박영진 코치 체제를 꾸린 여자프로농구 KDB생명 선수단이 2일 수원시 장안구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상견례를 마친 뒤 의지를 다지고 있다.

WKBL이 유보했던 코칭스태프 선임을 결정하며 위탁 운영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관해 WKBL 관계자는 “이미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휴먼자산운용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

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먼자산운용이 장기적으로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력과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의문을 갖는 시선이 적지 않다. 여자프로농구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몇 십 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적으로 그만큼의 여유를 가진 회사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또 하나 구리시와의 협력 방침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여자프로농구 관계자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WKBL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인수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WKBL 위탁 운영으로 팀을 끌어갈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추진 중이다”라며 “좋은 새 주인이 나타나면 매우 좋겠지만 인수가 되지 않을 것도 대비한 네이밍 스폰서 유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96년 역사'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팡파르

오늘 문경서 개막...6일간의 열전 1923년 '조선여자정구대회' 시초

올해로 96회를 맞는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가 3일 경북 문경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는 단일종목으로선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대회다. 종합스포츠 종목으로 확대를 해도 2018 전국체전(99회) 다음으로 오래된 대회다. 이 대회는 여성만이 참가한 최초의 스포츠 이벤트다. 1920년대 당시 '여자는 집 안에만 있는 것이 미덕'이라는 통념을 깨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대회다. 2006년부터는 남자 선수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한국 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1회 대회는 '조선여자정구대회'라는 명칭으로 1923년에 개최됐다. 당시 6월 14일자 동아일보 3면에 '조선여자정구대회 / 동아일보사 주최로 금월 말 경성에서'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며 대회 창설을 알렸다. 대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뛰어난 선수를 잇달아 배출, 경기 수준 역시 향상됐다. 매년 각 학교 코트를 빌려 전전하던 대회도 서울운동장에 연식정구 전용코트가 마련되면서 더욱 활기를 띄었

고, 참가교도 20여개로 늘었다.

1936년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동아일보가 정간, 1940년에는 폐간의 위기를 맞아 대회가 중단되는 등 여러 비운을 맞았으나 1954년 동아마라톤대회 등과 함께 부활해 중등부, 고등1-2부, 대학부, 일반부로 규모를 확대했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 정구를 세계정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66년 테니스와 분리되기 전까지 많은 테니스 스타들이 이 대회를 통해 성장했다.

지난 2001년 한국 정구의 요람이었던 서울 효창구장이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 헐리면서 경기도 안성으로 장소를 옮겼던 이 대회는 80회(2002년) 대회가 2002 아시아 경기대회 리허설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

렸고 81회(2003년) 대회부터 84회(2006년) 대회까지는 안성에서 열렸다. 그리고 2007년 85회 대회부터 문경에서 열리고 있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제90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 기간: 5월 3~8일
- 장소: 경북 문경국제정구장, 문경공고 정구장
- 종목: 단체전 및 개인복식, 개인단식, 혼합복식(신설)
- 부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부녀부
- 문의: 대한정구협회(02-420-4057)
- 주최: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 주관: 대한정구협회
- 후원: 문경시